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개막

국내 유일의 에너지·무역종합전시회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10월13일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막됐다.

녹색에너지대전 전시 세부내용

구 분	주요 전시 제품
그린에너지 생활제품관	○ 고효율콘덴싱보일러 ○ 대기전력측정계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등 절전기기 ○ 지붕 스프링클러 ○ 에너지절약형 온수마루 ○ LED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 하이브리드 가로등, 태양광가로등 ○ 자동조명제어시스템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스쿠터 등 ○ 시스템에어컨
저탄소 산업기기관	○ 고효율펌프 ○ 산업용 고효율보일러 ○ 세라믹, 에어로젤, 인슈블록 단열재 ○ 폐열회수기, 열교환기, ○ 열화상카메라, 각종 산업용 측정장비
신재생 에너지관	○ 태양광발전시스템, 모듈, 셀, 트랙커 ○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발전모니터링 ○ 건물용, 산업용 연료전지 ○ 하이브리드 태양열발전시스템 ○ 지열히트펌프, 지열발전시스템 ○ 풍력발전 시스템(수평축, 수직축) ○ 그린홈, 그린오피스 모델하우스
녹색정책 기후변화 대응관	○ 공공기관의 녹색정책 ○ CDM 사업 컨설팅: CDM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UNFCCC 등록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 배출권 거래: CDM 프로젝트 개발자가 확보한 탄소 크레딧 판매대행 및 중개

신·재생 에너지관 등 대주제관 4개와 LED·고효율 조명관 등 신 성장동력을 상징하는 특별테마관 4개를 중심으로 총 587개 부스가 설치됐다.

2009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수송용 100kW급 연료전지(현대자동차)와 국내 최초인 동시에 세계 4번째의 DME(Dimethyl Ether) 플랜트 기술(가스공사)을 포함 9개 기술이 우수기술로 선정됐다.

특히, 과거에는 참석이 저조했던 LG전자, 삼성전자, 효성, LS산전 등이 참가해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관련 최신기술을 선보였다.

주요 관람 포인트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관으로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총집결돼 있으며, 녹색수송관은 특별관으로 조성돼 수송분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또 낭비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폐열회수기, 히트펌프 등 산업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 제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인 LED(Light Emitting Diode)·고효율 조명은 특별테마관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조명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녹색에너지대전은 10월16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총 12개국 145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0/13>